

송현민  
음악평론가

#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기

솔직히, 클래식 음악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힘겨운 음악이라고 한다. '바바바 밤~'하는 멜로디로 유명한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도 이 도입부만 지나면 초심자들은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모른다. 가사도 없기에 대중가요처럼 따라 부르며 흥얼거릴 수도 없다. 가사가 있는 성악곡이라고 해도 외래어로 되어 있기에 난해한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왜 들으려고 하며, 고상한 취미로까지 삼으려고 할까? '멋'을 위해서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멋 부리기'를 위해서다. 이를 두고 자기과시욕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멋'을 제대로 체득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예술(클래식)에 대한 취미는 당시의 역사와 사회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멋있는 인간이 되기, 공부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우선 클래식 음악을 취미로 하려고 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암기로 외웠던 기억을 지우는 게 중요하다. 클래식 음악이 다가가기 힘든 것이라고 규정짓게 하는 것도 바로 학창시절의 시험을 위해서 외웠던 기억 때문이다. 그 뒤에는 흔히 알고 있는 음악부터 들으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어디서든 이런 이야기로 운을 떼면 누군가가 꼭 이렇게 묻는다.

## ● “어떤 곡부터 들어야 합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여기서 다른 이들은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등 교과서나 일상 속에서 들어보았음직한 작곡가의 곡을 추천한다. 사실 곡 추천만큼 위험한 방법(?)은 없다. 추천 받은 이들은 이 곡이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번 들어보다가 “그것마저도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나는 재능이 없나보다”라며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언컨대 첫 시작의 기준은 철저히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의 귀가 끌

리고 당기는 곡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때, 어떤 곡보다는 어떻게 들느냐가 중요하다. 일상공간에 클래식 음악을 '살며시 놓아본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자. 이럴 때는 KBS 1FM(93.1)을 청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 클래식 음악의 인구가 줄고 있기에 저변 확대 차원에서 KBS 1FM은 초보자·중급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는 경쾌한 음악을, 퇴근시간인 오후 7~8시에는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준다. 이때에도 '감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어폰을 통해) '컷가에 머무르게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KBS 1FM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곡은 그냥 흘리면 된다.

집에서 들을 때도 '감상한다'가 아니라, 이 역시 '생활 속에 녹인다'고 생각해야 한다. 익숙하다 싶으면 볼륨을 살짝 높이면 된다. 어떤 분은 라디오 옆에 메모지와 펜을 놓았다고 한다. 밥 먹다가 좋은 음악이, 아니 귀에 끌리는 음악이 나오면 그 곡을 메모했다고. 그래서 그 수많은 메모들을 정리해보니 자신은 첼로 소리와 궁합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60세가 넘는 그는 지금 열심히 첼로를 배우고 있다.

## ● 한명의 작곡가와 사랑에 빠져보자

보다 심화된 방법은 작곡가와 사랑에 빠져보는 것이다. 강의를 나가면 수강생 중에 한 명의 작곡가의 음반을 모아야 할지, 아니면 카라얀과 같은 역사에 남은 지휘자의 음반을 모아야 할지 질문하는 이들이 꼭 있다. 귀에 익숙해지고, 취미를 위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상태. 필자는 작곡가를 택하라고 한다. 작곡가가 지닌 음악적 특징과 색채를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밝음'과 베토벤의 '무게', 이런 식으로 말이다.

특히 클래식 음악계에서 작곡가의 탄생과 서거는 큰 역할을 한다. KBS 1FM에서는 “올해는 이 작곡가가 탄생한지 몇 주년 되는 해입니다”라며 많이 틀어준다. 또한 주요 곡들은 자주 연주되며, 음반이 새롭게 기획되어 발매되기도 한다.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베르디와 바그너가 탄생한지 200주년이었던 2013년에는 오페라단마다 베르디와 바그너의 명작들을 선보였다. 초심자들, 중급자들, 전문가든 오페라 애호가에게는 행복한 한 해였다.



## ● 올해는 시벨리우스의 해

올해는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시동을 걸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핀란드야와 교향곡 1~6번, 바이올린 협주곡 등이 세계 곳곳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휘자 김대진이 이끄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이 5·6·7·9·11월에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을 선보이며, KBS교향악단과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주요 교향곡을 연주한다.

클래식 음악계는 시벨리우스와 동시에 그의 고향인 핀란드의 문화와 예술을 주목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자일리톨'로 잘 알려진 핀란드는 인구가 5백5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다. 하지만 오스모 뱌스케, 유카 페카 사라스테, 에카 페카 살로넨, 사카리 오라모, 미코 프랑코 등 세계적인 지휘자를 배출해낸 음악 강국이다. 시벨리우스도 '국보급' 예술가로 대접받는다. 그의 이름을 딴 공원이 있는가 하면 아테네움 미술관에서는 '시벨리우스와 예술 세계'라는 기획전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시벨리우스의 레퍼토리 중 '핀란드야나 교향곡 중 몇 곡만이 연주될 뿐이다. 그래서 스웨덴의 비스(BIS) 레이블에서 나온 '시벨리우스 에디션'과 같은 음반은 실연으로 접할 수 없는 곡들이 모조리 담겨 있기에 시벨리우스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라 특별히 추천하고 싶다. 모든 작품이 5장의 CD에 담겨 있으며, 4~5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이 어렵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음악인 건 맞다. 하지만 접근은 가볍게 해야 한다. 이제 클래식 음악들을 생활 속에 살며시 놓아보자. 일단 기준은 '나의 귀'다. 그 다음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곡 한 곡씩 늘려 보도록 하자.

글 | 송현민(음악평론가) | 음악 듣고 글 쓰며, 책상과 객석을 오고간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했고, '한반도의 르네상스'를 주장했던 음악평론가 박용구원으로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다. 현재 월간 '객석'을 중심으로 원고 집필과 강의를 하고 있다.



## 古典名句

# 덕불고 德不孤, 필유린 必有隣

(논어, [리인]25)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사람이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계절이 바뀌어서 새로 입은 옷의 호주머니에서 뜻하지 않은 돈을 발견하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피곤할 때 싸면서 맛있는 맛 집을 찾으면 기쁨이 커진다.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찮게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 중에 하나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하고 그 상대가 하려는 말을 내가 하는 것처럼 만난 적도 없고 미리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도 뜻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

「논어」를 보면 “덕불고 德不孤, 필유린 必有隣”([리인]25)이라는 구절이 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뜻이다. “덕망 있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다”라고 말할 때 덕망은 사람을 끄는 힘을 가리킨다. 이러한 덕망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예술, 학문, 일상, 취미 등 다양한 영역에 해당된다. 이때 덕망은 꼭 밥을 자주 사준대거나 돈을 잘 빌려준대거나 하는 물질적 측면을 가리키지 않는다. 고민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위로를 해주는 등 마음이 가고 정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통해 덕이 생겨난다. 따라서 유덕자(有德者)는 상대를 배려하는 언행을 통해 주위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상대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괴로워하게 된다. 이처럼 함께 어울리며 뜻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이 무료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이 아무리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인 한 비슷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시간가는 줄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논어」에서 말하는 “덕불고, 필유린”의 뜻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 외롭다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보다 서로 통하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닐까? 마음이 맞는 짝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러면 나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